

# 딸이 웃는다



## 신 현 근

방대한 규모로 진행되는 물길공사의 일부분은 도 소재지인 증시의 유축으로 지나갔다. 그래서 증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실생활로 물길공사를 알며 느끼곤 한다. 그래서 모든것을 다 바쳐 지원한다.

증시에 있는 편의사업소에서 수리공으로 일하는 리명옥은 매일 종업원들과 함께 물길공사장으로 지원을 나갈 준비를 서두르다가 무춤 굳어졌다. 매일이 딸의 생일이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아침 자기를 바라보던 남편의 눈빛이 떠올랐던 것이다. 할말을 짐저리며 자기를 바라보던 그 눈빛은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일밖에 모르는 안해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자기 힘만으로는 어쩔수 없는 딱한 사정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어린애 같은 심정이 되어 안해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며칠전 딸애는 자기의 생일날에 기종이 높은 컴퓨터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초급중학교에 입학하여 소조에 들어간 딸애는 향학열이 부쩍 높아졌는데 특히 컴퓨터과목에서 일인자가 되겠노라며 그러자면 기종이 높은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딸애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의 이 요구를 거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었다. 딸애를 무척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응당하기까지 한 딸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다. 이즈음 물길공사장에 대한 지원사업에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고있는 안해에게도 그것이 힘겹고도 난처한 일이라는 것 또한 모르지 않았다.

지금 리명옥이 자주 지원사업을 나가고있는 물길공사장의 어느 한 매대에서는 긴장한 박토처리와 자재수송문제때문에 고심하고있었다. 도소재지의 유축으로 지나간것으로 하여 물길공사장에서는 버럭 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건설자재와 후방물자들을 실어오는 것도 중요했다. 그런데 현재 가동중에 있는 화물차대수로는 제기되는 수송문제를 원만히 보장할수가 없었다. 교장이 나서 수리에 들어간 차들을 살려야 하겠는데 제기되는 부속품을 원만히 해결할수가 없어 고심하고있었다.

이것을 안 리명옥은 돌격대의 차부속품들을 구입하는데 모든것을 다하였다. 그런데 지금껏 공부와 관련하여서는 그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습관된 딸애는 기종이 높은 컴퓨터를 바라고있는 것이었다.

남편은 전자제품들을 수리하는 안해가 절대로 자금을 후에 내기로 하고 사업소에 있는 컴퓨터를 딸애에게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었다. 리명옥은 그런 녀자였다. 사실 그들이 서로 알게 된 일도 바로 그런 리명옥의 성미때문이었다.

이것은 펍 오래전의 일이었다.

어느날 아침 출근길에 올랐던 청년은 치마저고리를 산뜻하게 받쳐입고 오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서있는 처녀를 보게 되었다. 미모의 처녀인데 왜서인지 낯이 익었다. 미인들이란 다 어스비슷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려는데 문득 그 처녀가 청년의 앞길을 막아서는 것이었다.

《저... 동지!》

조심스레 말을 건늌는 처녀앞에 청년은 의아해서 멎어섰다. 처녀가 웬일인지 짐저리면서 힘들게 말을 건넸다.

《이틀전에 우리 사업소 매대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컴퓨터부속때문에...》

그제야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예, 갔었습니다. 그리고보니 그때... 언제 한번 꼭 인사를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야, 찾았구만요!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이틀째 여기에 서있으면서 망신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망신하면 어쩌나 했는데...》

처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무엇인가 꺼내는 것이었다.

《이게 뭘니까?》

《그때 거스름을 받는걸 잊고 가셨습니다.》

청년은 아연해진 심정으로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니 그것때문에?!》  
《아무리 작은것이래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일을 더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세삼스럽게 처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으로 하여 그들은 서로 잘 알게 되었던것이다.

그들이 바로 청춘시절의 리명옥과 그의 남편이었다. 리명옥은 작은것이라고 별치않게 여기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자신도 아무리 작은것이래도 꼭 셈에 넣고 계산을 했고 남에게 주거나받거나 해도 역시 같았다. 수리때문에 들어오는 수많은 컴퓨터들과 전자제품들을 자기자신부터가 제 물건처럼 귀하게 여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그런 리명옥이 사업소의 컴퓨터를 그냥 가져다 딸애에게 줄리 만무하다는것을 남편은 잘 알고있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애의 생일날에 서운해하는 모습을 볼 용기는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안타깝고 난처한 마음으로 안해의 얼굴을 바라본것이었다.

남편의 그 눈빛을 돌이키는 이 순간 리명옥은 마음이 복잡했다.

그렇다면 딸애의 컴퓨터를 위해 지원사업을 잠시나마 늦추어야 한단 말인가.

마음속 동요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 일은 잠시도 늦출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다.

리명옥의 마음속에 한달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

《똑똑똑.》

문두드리는 소리에 명옥은 눈길을 들었다. 아직 중학생으로 빗보기 쉬운 어린 처녀가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돌격대제복을 입은 처녀였다. 그의 발치에 놓여져있는 중형증폭기가 눈에 띄웠다. 물길공사장에서 왔다고 자기소개를 하고난 처녀가 사연을 설명했다.

《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진 너무 중요한 부속이 나가서 고치기 힘들답니다. 혹시 여기 오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동무들이 일터에 노래소리가 없으니까 성수가 안 난답니다.》

순진하면서도 발랄한 기운을 풍기는 돌격대원처녀의 눈동자가 리명옥을 지켜보고있었다. 왜서인지 가슴이 찢려오고 미안해지는 마음이었다. 물길공사장을 가까이 두고있는 내가 돌격대에서 오래된 증폭기를 리용하며 불편을 느끼고있는것도 모르다니?!

리명옥은 돌격대원처녀를 끄당겨 의자에 앉히고 물어보았다.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주향미입니다.》

리명옥은 주향미의 손을 쓸어만지며 별에 그을렸을망정 순진하고 이쁜 기운을 잃지 않은 그 얼굴을 세삼스럽게 바라보았다.

《고생이 많겠군요.》

《일없습니다. 우린 그저 물길공사를 빨리 완공할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밤일도 싫지 않은데 그렇

게 밤일을 할 땐 노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다시 가슴에 밀려드는 미안함과 자책.

《두고 가요, 내 인차 꼭 책임적으로 수리해줄테니.》

처녀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무엇인가 즈저리며 명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리명옥은 처녀가 왜 그러는지 알아차렸다.

《우리 물길공사장사람들에게서는 보수를 받지 않아요. 미안해요, 고장이 나기 전에 제때에 해결 해주지 못해서.》

그렇게 돌격대원처녀를 보내놓고 리명옥은 오래도록 창가에 서있었다.

물길공사장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물길공사장은 우리 도를, 다름아닌 나자신과 우리 딸의 미래를 위하여 조국이 천만금을 들여 건설해가는 이 땅의 재부이다. 그것은 대를 물려갈 재부이다. 이 재부앞에 푼전을 먼저 따지는 인간은 가장 불쌍한 정신적인 빈곤자이다. 설혹 물질적인 재부는 사람을 다른 길로 유혹할수 있어도 정신적인 재부만은 인간을 영원히 참다운 삶으로 인도한다. 나는 그런 정신적인 재부를 지닌 인간이 되어야 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남편과 나의 딸도.

그리하여 리명옥은 새 증폭기와 화면반주음악기재를 비롯한 전자설비들을 일식으로 마련해가지고 물길공사장을 찾아갔던것이었다. 그런데 기뻐하는 돌격대원들중에 자기를 찾아왔던 주향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갔는가고 물어보니 대대장이 어두운 얼굴빛으로 말했다.

《오늘 새벽에 떨어지는 락반을 제일먼저 발견한 구 동지들을 구원하다가 그만 다리를 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리명옥은 음식과 약을 구해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다. 그런데 다리에 붕대를 동이고 침대에 앉은 주향미는 손에 바늘을 쥐고 장갑을 만들고있었다.

《우리 돌격대에선 장갑이 제일 귀해요.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장갑 한켠이라도 만들고싶어서...》

리명옥은 주향미를 품에 그러안았다. 얼마나 높은 인격과 진심의 소유자인가. 나이가 어려도 이런 처녀들은 정신력의 강자이며 부자들이다. 이런 처녀들의 곁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물길공사장지원사업을 시작한 리명옥이었다. 공사용자재는 물론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안고 공사장을 찾곤 했다. 몸이 약한 돌격대원을 위해 자기 집에서 키우던 집짐승으로 곰도 해주었고 생일상도 차려주었으며 돌격대생활을 낭만적으로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음악기재들과 전자설비들도 구해다가 돌격대에 보내주곤 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지원사업을 딸애를 위하여 잠깐만이라도 늦추어야 하는 일이 생겨난것이었다.

리명옥은 오래도록 망설였다. 그러나 끝내 마음을 정했다.

돌격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늦출수 없다.

설혹 어머니의 구실은 조금 못할지라도 조국이 바라는 정신적높이에 나를 올려세워야 한다. 딸도 나를 이해해줄 때가 있을것이다.

리명옥은 지원사업을 그대로 준비해나갔다.

다음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가지 음식밖에 없는 밥상을 바라보는 딸애의 얼굴은 밝지 못했다. 낡은 컴퓨터를 가방에 넣는 딸애의 얼굴은 눈물이라도 흘릴듯 했다. 웃음이 사라진 딸애의 얼굴을 보는 리명옥의 가슴은 아팠지만 참았다. 딸애가 공부가 끝난 다음 사업소로 오게 했고 그런 딸애를 이끌고 물길공사장으로 갔다. 지성껏 마련한 자동차부속품들도 굳이 딸애에게 들려가지고 갔다. 돌격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몹시도 기뻐했다. 하지만 딸애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한번도 웃지 않았다. 어머니인 까닭에 리명옥도 웃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돌아가려고 하니 벌써 저녁무렵이 되었다. 그런데 돌격대의 대대장이 꼭 저녁식사를 하고가라는것이 아닌가?

리명옥은 굳이 사양했으나 대대장은 돌격대원의 생일이 있다면서 꼭 저녁식사를 하고가라는것이였다.

아, 내가 또 큰 실수를 했구나. 돌격대원의 생일을 왜 생각 못했을까? 대대의 돌격대원들의 생일을 거의다 알고있다고 생각했던 자기였지만 역시 놓친 돌격대원이 있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부랴부랴 꽃다발이며 간식이며 기념품 등을 준비해가지고 저녁식사에 참가했다.

전등을 환하게 켜놓은 돌격대숙소에 큰 상이 차려지고 돌격대원들이 모두 모여들어 상우에 자기들이 준비한것을 차려놓는다. 삼시에 꽃이며 과일이며 음식이며 학용품이며 기념품들로 가득찬 생일상이 준비되었다. 대대장이 들어와 오늘 생일축하모임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니 뜻밖에도 리명옥의 딸 립향을 생일상으로 데려가는것이 아닌가?

모두가 깜짝 놀라 굳어졌다. 딸애도 놀라고 당황해진 얼굴이였다.

대대장이 말했다.

《오늘 우린 우리 물길공사장과 돌격대원들을 위하여 자기 딸의 생일상을 차려주는것도 마다한 리명옥동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고있는 수리공 문숙영이며 최혁, 유정이... 아 마 그들이 이야기했을것이다.

《물길공사를 하루빨리 완성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동지들과 같은분들의 마음이 우리를 더 큰 혁신으로 이끌어줍니다. 동지들과 같은분들은 우리에게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동지들!...》

리명옥의 눈앞은 흐릿해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 대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립향아, 너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우리 온 돌격

대가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축하한다!》하는 합창소리, 모두가 올리는 박수소리.

《너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어머니다.》

《네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주어 기쁘구나. 립향아, 어서 커서 어머니같은 사람이 되거라.》

《네가 기종이 높은 컴퓨터를 바랬다지. 이걸 우리 대대의 성의로 알고 받아다오. 이 컴퓨터로 공부를 잘해서 네가 훌륭한 학업성적을 이룩했을 때 우리가 더 좋은 컴퓨터를 마련해주마.》

대대장이 컴퓨터를 딸애에게 안겨준다. 만류하고 싶었으나 가슴이 껍 막혀들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딸애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놀란듯 하고 당황해진듯 한 얼굴이였다.

리명옥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딸애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났다.

《엄마!-》

컴퓨터를 안고 딸애는 돌아서서 소리높이 어머니를 찾았다.

《립향아!-》

딸애는 어머니에게로 달려왔다. 그 순간 리명옥은 활짝 웃고있는 딸애의 얼굴을 보았다. 마음속에 어떤 밝은 불이 켜지기라도 한듯 환해지고 어여빠진 딸이 달려오고있었다.

명옥은 웃고있는 딸애의 얼굴뒤에서 한없이 기뻐하는 정답고도 성실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후광처럼, 조명처럼 딸애를 감싸안고 다가오고있었으며 미구하여 주변을 알지 못할 빛으로 밝게 물들이는듯 했다. 그속에서는 돌덩이와 무쇠도 어떤 밝고도 생신한 빛을 떨것만 같았다. 아침해가 붉게 떠오를 때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것처럼, 무지개가 곱게 비길 때 풀잎의 이슬방울들이 령롱하게 빛나는것처럼 그렇게 크나한 기쁨속에 딸애의 작은 기쁨도 빛나고있었다.

리명옥은 목이 짝 메인듯 한 심정이였다. 그렇게 환해진 얼굴을 안고 딸애는 어머니 품에 안겼다. 그렇게 안겨 몸을 꼭 대고 말하다나니 딸애의 목소리는 마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듯이 느껴졌다.

《엄마, 나 이 컴퓨터 없어도 돼요. 이걸 돌격대 아저씨들이 쓰도록 하자요. 그래도 되지요?》

기쁨과 고마움으로 목이 짝 메여온다.

《고맙다, 내 딸아! 너도 인생의 가장 귀중한 재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게다.》

리명옥은 밝게 웃는 딸애를 앞에 세우고 대대장 앞으로 다가갔다.

《대대장동지, 내 딸의 성의를 받아주세요.》

《명옥동지!》

딸애는 컴퓨터를 대대장에게 안겨주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리명옥은 박수를 치며 밝게 웃는 딸애와 사람들의 얼굴을 한없는 기쁨과 고마움속에 둘러보았다. 거기에는 웃고있지 않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다. 그것은 우리 조국의 모습이였다.